



NH농협은행,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NH농협은행 서울본부는 지난 17일 천호1동 주민센터와 광진구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원한 사랑의 김장 김치는 천호1·3동 주민센터, 주민센터광진구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됐다. /NH은행



BBQ, 가맹점주와 함께 1만 마리 치킨 기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패밀리와 함께하는 치킨릴레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1만 마리의 치킨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BBQ



교보증권, '아름다운 가게'에 의류 2500여점 전달

교보증권은 창립 74주년을 기념하고 사회와 환경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드림이 나눔웃장'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1월 첫째 주부터 약 3주간 나눔웃장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전개했으며 봉사 및 직접 임직원 1000여명이 적극 동참해 총 74포대가 모였다. 사용 가능한 의류 총 2500여 점을 친환경 세상을 만드는 비영리법인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했다.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지역아동센터에 책장 기부

유진투자증권은 신입직원들이 손수 제작한 아동용 책장을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입사 2년차 신입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리뷰데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21년 입사한 직원 33명이 참여해 지난 10일 용산구 소재 공방에 모여 아동용 책장 11개를 제작했다. 제작된 책장은 지난주 영등포 디모테지역아동센터에 기부됐다. /유진투자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임감사, 최기의 KS고용정보 대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임감사에 최기의 전 KS한국고용정보대표이사(사진)가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신임감사는 부산남고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주택은행(KB국민은행 전신)에 입행한 '30년 은행원' 출신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현대자동차, 'TCR 월드투어' 드라이버 부문 챔피언

엘란트라N TCR, 종합 우승 확정 '차이나 챔피언십'서도 정상 올라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 '2023 TCR 월드투어'에서 드라이버 부문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현대차는 20일 엘란트라N TCR(국내명 아반떼 N TCR)이 마카오에서 열린 TCR 월드투어 최종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엘란트라N TCR 경주차로 출전한 노베르트 미첼리츠 선수는 17~19일 마카오 기아 서킷에서 개최된 첫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미첼리츠는 개막 전인 포르투갈 대회부터 3차전 이탈리아, 8차전 호주 및 9차전 마카오 대회까지 우승하며 이번 시즌 드라이버 부문 챔피언에 올랐다. 같은 경주차로 출전한 미켈 아즈코나 선수는 첫 번째 결승 레이스 4위에 올랐



'2023 TCR 월드투어' 마카오 대회에서 엘란트라 N TCR이 주행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

으며, 드라이버 부문 종합 5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BRC 현대 N 스퀘드라 코르세팀 은 총 805포인트로 팀 부문 종합 3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TCR 월드투어와 같은 기간 마카오에서 개최된 '2023 TCR 차이나 챔피언십' 최종전에서도 서킷 경주차 엘란트라 N TCR이 정상에 올랐다. '현대 N(Hyundai N)'

팀의 마틴 카오 선수는 첫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엘란트라 N TCR의 강력한 성능을 중국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선보였다.

올해 5월 상해 국제 서킷에서 열린 TCR 차이나 챔피언십 개막전부터 좋은 성적이 이어온 마틴 카오는 6라운드 마카오 대회를 끝으로 드라이버 부문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엘란트라 N TCR 역시 모델 부문 중

합 1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팀 부문에서는 현대 N 팀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고성능 N 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 선언한 현대자동차는 이번 TCR 차이나 챔피언십 우승을 기반으로 중국 내 N 브랜드 팬덤을 확고히 구축하고 고성능 경주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틸 바텐베르크 N 브랜드 & 모터스포츠사업부 상무는 "올해 엘란트라 N TCR과 함께 마카오에서 열린 TCR 월드투어와 TCR 차이나 대회 모두 우승을 차지해 정말 자랑스러우며 이는 드라이버들과 팀원들이 합심해 꾸준히 노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모터스포츠 활동을 통해 N 브랜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내년 대회도 철저히 준비해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비전, 상생협력 체제로 60개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중소 상생협력 파트너 간담회 신제품 교육·시연 등 의견 주고받아

한화비전이 파트너 상생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한화비전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대·중소 상생협력 파트너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멘토기업인 한화비전이 중소기업(주관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 '한화비전 상생협력 파트너 간담회'가 열린 한화비전 판교 R&D센터 대강당.

한화비전은 지난 2020년부터 회사의 비전 기술(AI, 영상처리, 광학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 중소기업의 공공조

달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수입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개 단체의 120개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으며, 매년 2회에 걸쳐 대·중소 상생협력 파트너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화비전 신제품 교육 및 시연, AI 카메라 솔루션 응용사례 소개, 상생협력 신제품 라인업 운영방안 논의, 제품 인증 및 영업 기술 모색 등 동반성장을 위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화비전 판교 R&D센터, 대구

/양성운 기자

종합유통단지 전자관, 대전무역회관 등 참여 중소기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열린 간담회에는 3일에 걸쳐 총 60개 중소기업에서 77명이 참여했다.

조만간 한화비전 한국영업담당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하는 상생협력 지원 사업으로 한화비전 핵심 기술과 중소기업의 실용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국산 제품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많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한화비전과 동반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려대 교원 5명, HCR 명단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김중승 교수, 10년 연속 선정

글로벌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 전 톰슨 로이터 지적재산 및 과학분야 사업부, 이하 클래리베이트)가 발표한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명단에 고려대 교원 5명이 선정됐다.

고려대학교는 20일 고려대 교원 김중승(화학과), 우한영(화학과), 노준홍(건축사회환경공학부), 안춘기(전기전자공학부) 교수와 제2소속이 고려대인 클라우스 로버트 뮐러(인공지능학과) 교수 등 총 5명이 HCR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김중승 교수는 2014년 이래 화학 분야에서 10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노준홍 교수는 크로스필드(Cross-field) 분야에서 6년 연속 선정됐고, 안춘기 교수는 공학 분야에서 5년 연속 선정됐다. 클라우스 로버트 뮐러 교수는 크로스필드 분야에 5년 연속 선정됐으며 우한



(왼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고려대 김중승(화학과), 우한영(화학과), 노준홍(건축사회환경공학부), 클라우스 로버트 뮐러(Klaus-Robert Muller, 인공지능학과), 안춘기(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고려대

영 교수는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크로스필드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고려대 관계자는 "석탑연구상, 석탑기술상과 같은 다양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위에 창의와 혁신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건강한 연구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라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

현대그룹, 차세대 여성리더 적극 양성

3년 과정 여성리더십 프로그램

현대그룹이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여성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현대는 그룹 계열사 과정급 이상 중에 선발한 여성리더 20명을 대상으로 3년 과정의 여성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최근 세계의 화

두로 떠오른 DEI 가치경영(Diversity·다양성, Equity·공정, Inclusion·포용)을 중심으로 리더십·온라인 MBA·디자인 싱킹 등의 분야로 나눠 여성리더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직접 참석해 이들과 소통하며 여성리더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인사

- ◆공정거래위원회△입찰담합조사과장 이득규 △하도급조사과장 오동욱
- ◆경희대의료원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경희대학교의료원장 김성완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학교병원장 오주형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겸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장 이우인
-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 백형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 양윤석
- ◆한전원자력연료 △1직급 승격 △기술

본부 최재돈 △사업관리실 윤종목 △세라믹생산자 김창우 △2직급 승격 △감사실 김명기 △인사노무처 유조환

부음

▲박민씨 별세, 박병연(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씨 부친상 = 20일 오전 5시30분, 전북 전주 시티장례문화원 특201호, 발인 22일, 장지 정읍 선영. 063-274-4444